

제 ① 교시

국 어

1. 다음 중 ‘준우’의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수: 드디어 시험 끝났어. 힘들었는데 저녁 먹고 가자.
준우: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힘들긴 했어. 그런데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저녁은 내일 먹는 건 어떨까?

- 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의견에 공감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 ④ 상대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다.

[2~3]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개요

I. 처음: 독서 캠프 소개

II. 중간

1. 독서 캠프 기간 및 장소 안내 ㉠
2. 독서 캠프 프로그램 안내 ㉡
3. 독서 캠프 참가 신청 방법 안내 ㉢

III. 끝: 독서 캠프 참가 권유 ㉣

(나) 글의 초고

여러분을 독서 캠프에 초대합니다!

‘책과 함께하는 가을날’이라는 ㉠주제를 열리는 독서 캠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여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독서 캠프는 10월 ○일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지역 □□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책을 통해 서로 ㉡가깝도록 독서 스피드 게임, 독서 보드게임 등을 첫날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도서관에서 밤새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야간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책 낭독회를 열어 책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 캠프는 여러분에게 책과 함께하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책 향기로 가득한 가을날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3. (나)의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를 잘못 사용하였으므로 ‘주제로’로 바꾼다.
- ② ㉡: 주어와 호응하도록 ‘가까워지도록’으로 수정한다.
- ③ ㉢: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읽을수’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4. 밑줄 친 부분 중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① 술이[소티] 매우 크다.
- ② 닫힌[다친] 문을 열었다.
- ③ 굳이[구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 ④ 피붙이[피부치]보다 가까운 것은 없다.

5. 다음 높임법이 나타난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① 민주야, 방학 잘 보냈니?
- ② 어머니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 ③ 선생님께서 소설책을 읽으신다.
- ④ 작은형이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6.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 한글 맞춤법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 ① 양심(良心) ② 예의(禮儀)
- ③ 협력(協力) ④ 성공율(成功率)

7.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내·이·를爲·왕·ᄒ·야 ㉠: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
·늪字·중·를ᄇ·ᄇ노니 ㉡:사를·마·다·히·ᄇ:수·ᄇ니·겨
·날·로 ㉢·부·ᄇ便ᄇ安한·크ᄇ·고·저ᄇ ㉣쓰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본 -

- ① ㉠: ‘예쁘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 ‘、’(아래 아)가 사용되었다.
- ③ ㉢: 단어의 첫머리에 두 개의 자음이 사용되었다.
- ④ ㉣: 이어 적기로 표기되었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 개잘량²⁾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³⁾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A]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중략)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 오음 육률⁴⁾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⁵⁾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예예.
 생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⁶⁾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솔솔 하여 말뚝이 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춘춘이, 바위 틈틈이, 모래 켠켠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⁸⁾ 놈도 없습디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 1) 옥당: 홍문관의 부제학,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2) 개잘량: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부드럽게 만든 개의 가죽.
- 3)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흰 막치 소반.
- 4) 오음 육률: 예전에, 중국 음악의 다섯 가지 소리와 여섯 가지 율(律).
- 5) 홀뚜기: 버드나무 가지 꺾질이나 밀짚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
- 6) 일조식: 아침 일찍 식사함.
- 7) 법덕: 프랑스와 독일을 아울러 이르던 말.
- 8) 비뚝한: 비슷한.

8.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을 희화화하여 풍자한다.
- ② 음악과 춤을 통해 관객의 흥을 돋운다.
- ③ 열거와 과장을 활용해 웃음을 유발한다.
- ④ 꿈과 현실을 교차해 비현실성을 부여한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의를 환기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 ② ㉡: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③ ㉢: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키고 있다.
- ④ ㉣: 양반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고 있다.

10. [A]의 ‘말뚝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호통을 듣고 변명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리밥 꽃노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 바윗 긋 물의 슬크지¹⁾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누고서 ㉢ 삼공(三公)²⁾도곤 낫다 흥더니 만승(萬乘)³⁾이
 이만흥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⁴⁾ | 낙뚫더라⁵⁾
 아마도 ㉣ 임천한흥(林泉閑興)⁶⁾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1) 슬크지: 실컷. 마음껏.
- 2)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
- 3) 만승(萬乘):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 4) 소부(巢父) 허유(許由): 고대 중국의 인물들로,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며 살.
- 5) 낙뚫더라: 영리하더라. 약았더라.
- 6) 임천한흥(林泉閑興):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11.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길다.
- ②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3음보의 율격이 주로 드러나고 있다.
- ④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 있다.

12. 다음 중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령하는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 다음을 참고할 때, ㉠~㉣ 중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만흥(漫興)」은 작가가 유배되었다가 고향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는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 허 생원과 조 선달은 우연히 만난 청년 동이와 함께 메밀꽃이 핀 달밤에 대화 장을 향해 걸어간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두 도무지 알 수 없어.”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졌으나 보름을 가제¹⁾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호붓이²⁾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두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호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³⁾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 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쫘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중략)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 서는 녹았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 1) 가제: 갓.
- 2) 호붓이: 호젓하고 뿌듯한 느낌으로.
- 3) 대궁: 식물의 줄기.
- 4) 확실히: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14.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 ②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물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③ 감각적 묘사를 활용하여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 ④ 과거 회상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려는 인물을 보여 준다.

15. 다음 중 ㉠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허 생원과 조 선달을 헤어지게 한다.
- ④ 허 생원에게 성 서방네 처녀를 생각나게 한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허 생원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 ㄴ. 허 생원은 조 선달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 ㄷ. 조 선달은 산길에서 허 생원보다 앞장서 걷고 있다.
- ㄹ. 동이는 허 생원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¹⁾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텐 자리에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 1) 난분분: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럽게.

17.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8. [A]에 드러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봄’을 맞이하는 ‘눈’의 기쁨
- ② ‘도전’을 거듭하는 ‘눈’의 노력
- ③ ‘나뭇가지’를 시샘하는 ‘눈’의 원망
- ④ ‘바람’의 생명력에 대한 ‘눈’의 기대

19. 다음 중 ㉠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청유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중략)

의류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벌 산 적은 없는지, 일회용품 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 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 이민정,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

20.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시대별 발전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1.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드디어 ② 하지만 ③ 그러므로 ④ 왜냐하면

22. ㉠~㉤ 중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 발견되고 있다. (중략)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밀리미터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든다.

[A]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폐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꽂초 필터, 합성 섬유 등 ㉡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중략)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 우려가 있으면 인과 관계가 ㉣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 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 김정수,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

23.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 ②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이나 치약이 있다.
- ③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이다.
- ④ ‘사전 예방의 원칙’은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
- ② ㉡: 온갖 종류. 또는 여러 종류.
- ③ ㉢: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
- ④ ㉣: 틀림없이 그러하게.

2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차 미세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 ②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③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플라스틱계 쓰레기의 예시를 활용하여 ‘2차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